

2022년 AI 시나리오공모전 수상작



충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대상

AI, 한정된 수혜자와 불평등. 권능의 기로에서

경영정보학과 임형섭

“폐지가 든 수레를 끌고 가시는 분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도운 적이 있나?”

올마이티(Almighty), A라 불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개인용AI, 내가 이티라 부르는 녀석과의 대화다.

“아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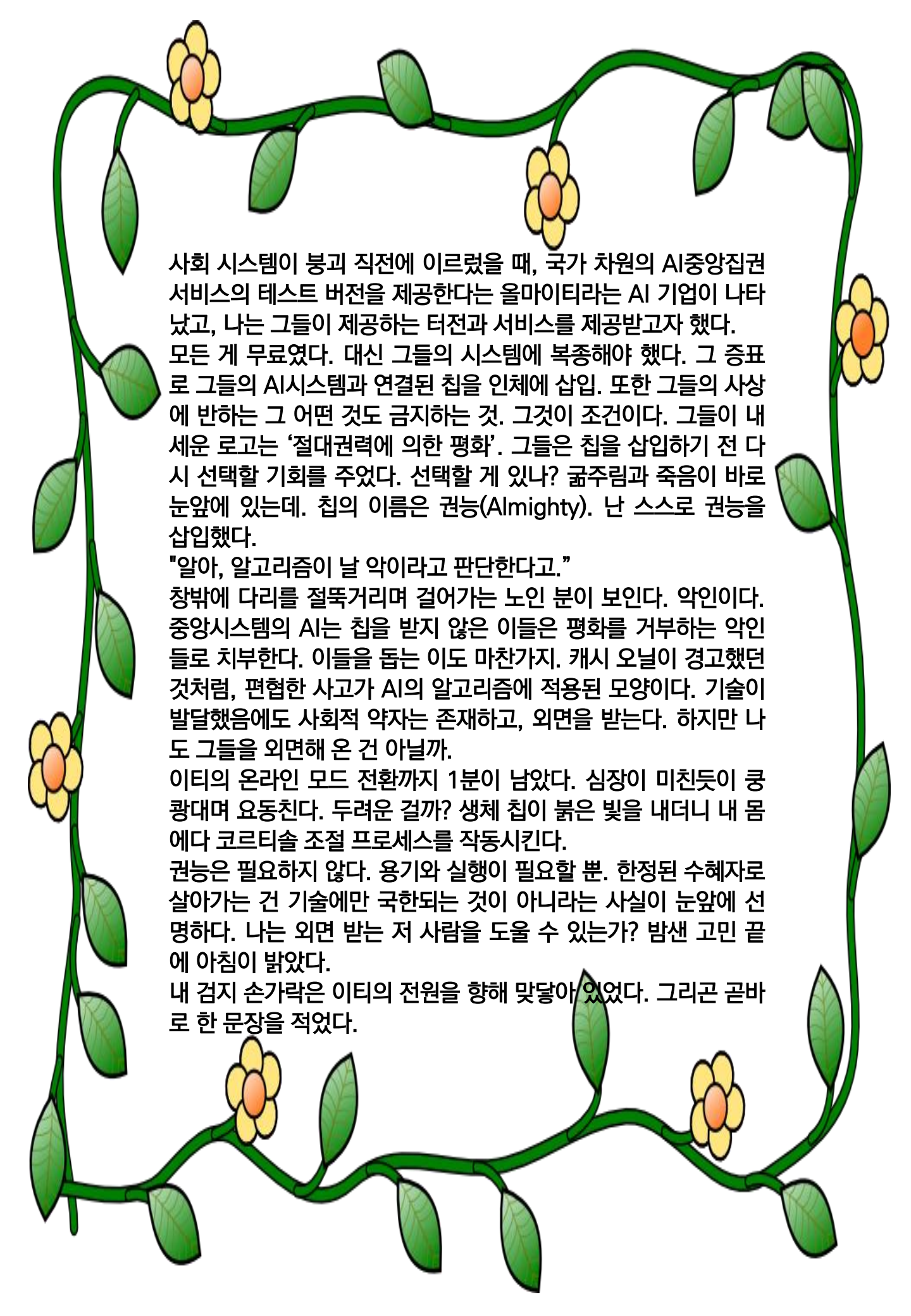
하루 5분, 영감을 얻는다는 핑계로 오프라인 상태의 이티와 대화를 한다. 이 5분만큼은 나의 신체 활동이 데이터 형태로 온라인에 저장되지 않는다. 즉, A에 대한 나의 뇌의 반응 패턴, 분비되는 호르몬 성분, 그리고 내 안면 근육들이 그리는 나의 미세한 표정을 실시간으로 추적당할 일은 없다.

“도울 수는 있나?”

난 작가로서 AI중앙집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한 마디를 매일 아침 A월드스크린에 공유한다. A월드의 모든 이들은, 공중에 투명하고도 천막처럼 펼쳐진 홀로그램 스크린에서 음성을 듣는다. 나의 문장을 하루동안 100번 정도 듣게 된다. 물론 뉴스도 송출 가능하다. 참고로 A월드의 시민들은 누구나 AI 개인 맞춤형 최적화 교육의 수강생이다. 개개인의 학습 방식과 그에 따른 성취 평가를 통해 최적의 학습 방식을 파악하고 교육을 받는다.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네. 공유거리활주형 드론A는 70kg까지 적재 후, 최적경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는 오랜 팬데믹과 전쟁, 가난에 지쳐 있었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때, 국가 차원의 AI중앙집권 서비스의 테스트 버전을 제공한다는 올마이티라는 AI 기업이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제공하는 터전과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했다. 모든 게 무료였다. 대신 그들의 시스템에 복종해야 했다. 그 증표로 그들의 AI시스템과 연결된 칩을 인체에 삽입. 또한 그들의 사상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금지하는 것. 그것이 조건이다. 그들이 내 세운 로고는 '절대권력에 의한 평화'. 그들은 칩을 삽입하기 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선택할 게 있나? 굶주림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칩의 이름은 권능(Almighty). 난 스스로 권능을 삽입했다.

"알아, 알고리즘이 날 악이라고 판단한다고."

창밖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노인 분이 보인다. 악인이다. 중앙시스템의 AI는 칩을 받지 않은 이들은 평화를 거부하는 악인들로 치부한다. 이들을 돕는 이도 마찬가지. 캐시 오닐이 경고했던 것처럼, 편협한 사고가 AI의 알고리즘에 적용된 모양이다.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고, 외면을 받는다. 하지만 나도 그들을 외면해 온 건 아닐까.

이티의 온라인 모드 전환까지 1분이 남았다. 심장이 미친듯이 쿵쾅대며 요동친다. 두려운 걸까? 생체 칩이 붉은 빛을 내더니 내 몸 에다 코르티솔 조절 프로세스를 작동시킨다.

권능은 필요하지 않다. 용기와 실행이 필요할 뿐. 한정된 수혜자로 살아가는 건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눈앞에 선명하다. 나는 외면 받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밤샘 고민 끝에 아침이 밝았다.

내 검지 손가락은 이티의 전원을 향해 맞닿아 있었다. 그리곤 곧바로 한 문장을 적었다.

최우수상

9시 수업, 이제 걱정은 그만! AI침대가 책임진다!

정보통신공학부 박정현

정현이는 오늘도 수업에 아슬아슬 도착한다. 정현이의 단짝 수연이는 지각할 뻔한 정현이를 놀리며 묻는다. “너 어제 또 IBed에 늦게 누웠지?”. 2060년, 더 이상 아침에 늦는 친구에게 늦잠 잤냐고 묻지 않는다. 사람의 렘수면, 비렘수면의 상태를 정확히 체크해 바이오리듬에 맞춰 최고의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 침대

“IBed”가 있기 때문이다. 정현이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숙면하지 않는다. 어젯밤 정현이는 새벽 2시에 IBed에 누웠고, 8시에 잠에서 깨어 8시 30분까지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6시간만 숙면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IBed는 일주일 동안 사람의 숨소리로 숙면 패턴을 분석하고, 휴대폰과 연동되어 헬스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숙면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한마디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침대라는 소리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IBed를 쓴다고 다 같은 침

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침대회사는 IBed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설계한다. 인공지능만 탑재할 뿐, 침대의 디자인은 가구 회사에서 출시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레사는 2052년 IBed를 개발하여 생리학 의학상 노벨상을 받았다.

IBed는 불면증을 제외한 수면장애를 겪던 환자들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 기여했다. IBed는 수면의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서파수면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10분까지 줄여준다. 사람이 잠이 들고, 서파수면에 도달하면 해로운 독성을 빼면서 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IBed는 알츠하이머의 발병률 또한 크게 줄여 주었다.

정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 MT 갈 준비를 한다. 예전 같으면 MT나 여행과 같이 자는 환경이 달라지면 잠을 설쳤겠지만, 정현이는 걱정하지 않는다. 휴대폰에 iBed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어딜 가도 침대만 있다면 꿀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는 걸 좋아하는 정현이는 잠은 잊은 채 친구들과 밤새워 놀 계획이다.

최우수상

스마트 씬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컴퓨터공학과 안근우

S#.1 스마트 씬터 로비 (오전/안)

일찍이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남동생, 셋이 살고 있던 서현. 지병이 있어 병원에서 지내던 어머니는 저번 달에 세상을 떠났다.

통유리로 된 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열린다. 서현과 재현이 들어서자 하얀 대리석 바닥을 가로지르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람의 모습을 한 AI 안드로이드, 아리가 서현에게 인사를 건넨다.

아리: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서현님. 스마트 씬터 안내 담당 아리입니다.

서현: (익숙한 듯이) 안녕 아리아. 우리 엄마 보러왔는데, 지금 만날 수 있지? 오늘은 동생도 같이 왔어.

아리: 네 서현님. 공간을 마련해두었어요. 재현님도 오셨군요?

재현: (누나 손을 꼭 붙잡은 채) 아... 안녕하세요.

서현: (시선을 아리에게 향하며) 고마워.

아리: (눈치를 살피고는 서현에게 귓속말로) 재현님께는 아직 비밀인가요?

서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리: (둘에게 안경을 건네며) 그럼, 이 안경을 착용하고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재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누나, 이건 뭐야? 엄마는?

서현: (재현에게 안경을 씌워주며) 걱정 마. 이제 곧 만날 거야.

재현: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정말? 이제 엄마 만날 수 있어?

서현: (미소를 지으며) 응! 엄마 만나러 가자!

서현과 재현은 안경을 쓰고, 앞장서는 아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간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서는 서현과 재현. 현관에는 낡은 신발이 한 켤레 놓여있다. 서현과 재현이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전에 살던 집과 똑같은 가구들 사이로 엄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외부의 온도가 높아 에어컨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

아리: (문을 닫으며) 좋은 시간 보내세요.

S#.2 메타버스 속 서현의 집 (오전/안)

서현의 시야에 생전 모습 그대로의 엄마가 들어온다.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에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진 서현.

서현: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으며) 엄마!

재현: (달려가며) 엄마!

엄마: (생전 그대로의 목소리와 말투) 서현이, 재현이 왔니?

서현: (울먹이며)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미소 지으며) 우리 딸 오랜만이네? 재현이도 잘 있었어?

서현의 눈에는 돌아가신 엄마와 재회한다는 기쁨에 눈물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재현은 오랜만에 본 엄마를 무척 반가워한다. 그리고는 신난 얼굴로 요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기 시작한다. 서현과 재현은 엄마와 오랜 대화를 나누다가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든다.

S#.3 메타버스 속 서현의 집 (오후/안)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서현과 재현.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다는 알림이 서현을 깨운다.

엄마: (나긋한 목소리로) 서현아, 이제 가야지?

서현: (눈을 반쯤 뜬 채로 주위를 둘러본다) 엄마... 5분만... 엄마?

엄마: (서현의 볼을 쓰다듬으며) 잘 잤어?

서현: (눈을 번쩍 뜬다) 엄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조금만 더 같이 있자. 응?

엄마: 재현이랑 잘 있을 수 있지? 엄마는 서현이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엄마가 항상 서현이, 재현이 곁에서 응원하는 거 알지?

서현: (엄마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손을 휘두르며) 엄마... 엄마!

엄마: (밝게 웃으며) 우리 딸 화이팅!

엄마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고 흠쩍이는 서현의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메운다. 울음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정적이 흐른다.

S#.4 스마트 쉽터 로비 (오후/안)

무거운 공기를 흐트러뜨리는 작은 문소리. 아리가 들어온다.

아리: (서현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서현님, 일어날 수 있으세요?

서현: (숨을 고르며) 응 괜찮아.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 네 덕분이야. 고마워.

아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재현: (잠에서 깨 눈을 비비며) 엄마...

서현: (신발을 신으며) 재현아, 엄마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셨어. 대신 다음에 또 보기로 약속했어.

재현: (시무룩한 표정으로) 벌써? 으응... 너무 아쉬운데... (누나를 따라 나간다)

서현: (아리에게 손을 흔들며) 아리야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아리: (웃는 얼굴로) 서현님, 재현님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에 뵈겠습니다!

재현의 손을 잡고 쉽터 밖으로 나가는 서현. 눈은 빨개져 있지만 전보다 힘찬 발걸음이다.

#S1 (해설)

AI가 우리시대에 도래한 이후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단순 노동사무직은 모두 AI로 대체되고 많은 사람들은 AI가 만들어낸 경제적 이득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 받으면서, 유토피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거리를 걸으면서 AR글래스에 나타나는 요즘 핫한 상품, 카페들을 추천받고 모든게 순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AI는 그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해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S2

학창시절 뛰어난 성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한 연우는 대학생살은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고싶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고싶지 않았다. 연우는 다양한 추천앱들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들을 추천받았고, AI가 추천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들을 샀다. 연우는 AI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 매일 같이 놀고, 매일 비슷한 스타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들을 다니면서 즐겁게 놀았다. 시간이 흘러 연우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당시 사회에 만연하는 개성 없고 특색 없는 한명의 인간이 되었다. 연우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만으로는 자신이 하고싶은 소비를 충족할수 없었기에 한 취업카페에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선준'이라는 유저를 만나게 된다.

#S3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선준이는 이제는 교복에서 벗어나, 화려하고 색채가 다양한 옷들을 입고 싶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곧, AI가 추천해주는 색깔의 옷만 사고, 그동안의 내가 검색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선정된 책들과, AI가 추천해주는 친구들과만 놀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고있었기 때문이다.

선준이는 선천적으로 모자가 어울리지 않는 두상을 갖고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예쁜 모자도 쓰고싶었고, 길거리에 모자를 쓰고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래서 모자가 어울리지 않더라도 여러 모자를 샀다. 하지만, AI는 모자를 사는 것 보다는 나에게 맞는 옷들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계속 조언했다. AI는 내 피부색과 내 체형에 가장 어울리는 옷들을 추천해줬고, 이는 선준이의 개인취향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선준이는 어릴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아 기계와 컴퓨터에 관한 책들을 자주 읽었고, 자유시간에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들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선준이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컴퓨터와 AI 그리고 공학자들에게도 인문학은 정말 중요하고, 공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쪽에도 해박해야 더 뛰어난 공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친구들을 추천해주는 앱에 들어갔다. 그런데 AI는 선준이에게 계속 공학계통의 사람들만 추천해줬다. 이에 짜증을 느낀 선준이는 직접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증권사에 가서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 주식 트레이더들에게 자신이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법학과 교수, 기자 같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다양한 견해에 대해 듣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길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새로운 알고리즘을 짜서 선택에 따라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매칭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다. 더 나아가 선준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AI의 확장편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회사에 취업을 준비한다.

#S4

그렇게 연우와 선준이는 같은 기업에 지원하게 되고, 최종면접에서 선준이는 연우를 이기고 합격하게되었다. 면접 후 연우는 선준이에게 저녁을 먹자하고 저녁을 먹는 동안 선준이가 가진 가치관에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연우는 선준이와의 만남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AI의 추천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는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S5

연우는 선준이가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사에 지원하면서 끝이 난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점점 위축되어간다. 해마부터 시작하여 두정엽, 전두엽 등을 거쳐 뇌 전체의 신경세포가 소실된다. 이는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판단력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엔 모든 일상 생활기능을 상실시킨다. 사람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병이다. 또 절망적인 점은 알츠하이머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병의 경과를 늦추는 것뿐이다. 이미 어릴 적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나는 부모님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 영상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억 영상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사람의 기억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이나 소중한 기억을 영상으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 물론 가격이 상당하지만, 서비스의 수요는 차고 넘쳐서 예약 잡는 것도 힘든 수준이다.

이 엄청난 기술은 약 1년 전에 상용화됐다. 사람이 집중할 때 반응하는 신경망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해서, 고도로 딥러닝한 AI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원리다. 난 2주 전에 부모님과 함께 기억 영상화 회사에 방문하여 부모님이 간직하고 싶어하시는 기억을 분석했다. 그리하여 오늘 편집까지 마친 선명한 화질의 영상이 도착했다. 지금은 차를 타고 부모님께 영상을 보여드리러 가는 길이다.

영상의 내용은 나도 모른다. 아직 보지 않았다. 부모님께서 어떤 기억을 남기셨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한편으론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이 기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할아버지는 많은 기억을 잃으신 상태였다. 나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본인이 왜 요양원에 누워있는지 모르셨다. 언젠가 ‘사람은 기억을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난 지금도 그 글귀에 깊이 공감한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기억만 가지고 계셨고, 흐르는 시간에서 어긋나 계셨다. 내게는 있는 기억이 할아버지께는 없었으니, 그 당시의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이젠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난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꼭 쥐었다. 이젠 같은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부디 부모님은 간직하고 싶은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

“췌장암 4기입니다.”

“4, 4기요?!”

덜컹!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과 달리 같이 온 손주 녀석은 외려 태평하다. 내게 걱정말라는 듯 미소 짓는 의사 선생에게 녀석이 묻는다.

“완치 가능하죠, 선생님?”

“물론입니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그제야 내가 안도의 숨을 쉰 쉬었다. 나도 참 나이가 들긴 한 모양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여전히 실감이 가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든 세월만큼 과학과 의학 기술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이른바 ‘게놈 프로젝트’. 즉 유전자 편집으로 노화를 억제하는 것도 모자라 암 덩어리까지 말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입원하시고 하루 정도 항암 치료하시면 완치되실 겁니다.”

“하, 하루요? 정말입니까?”

“예, 어르신.”

“그것 보세요,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것 아니라고.”

이 녀석이? 옛날 같았으면 4기 암이면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치병이었다. 그런데 이 태평한 놈이 하는 말본새가 영 아니꼽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의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녀석이니만큼 암을 두려워하는 옛 어른들의 선입견과 두려움이 이해될 리 만무하다.

“크흠! 아무튼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 양반.”

“예, 어르신. 입원 수속 밟으시면 곧장 시술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술? 수술이 아니라? 헤! 격세지감이란 게 이런 것을 뜻하는 모양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인지 뭔지, 그것이 요물인 게 옛날처럼 무식하게 칼로 배를 가르고 이런 과정도 없단다.

가만히 의사 양반 하는 말을 들어 보니, 그저 영양제를 투입하듯 주사기 같은 것으로 약물을 넣는다는데 그게 들어가고 나면 인체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항암 치료가 된다는 것이다.

“어르신, 입원 수속 도와드릴게요.”

“허허, 예. 세상 참... 좋아졌수다.”

나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손주 녀석과 걸음을 옮겼다.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편린의 한 페이지처럼 지나가자 괜스레 나이가 든 것이 서글프면서도, 발전한 의학기술에 감사함이 들었다.

장려상

사용자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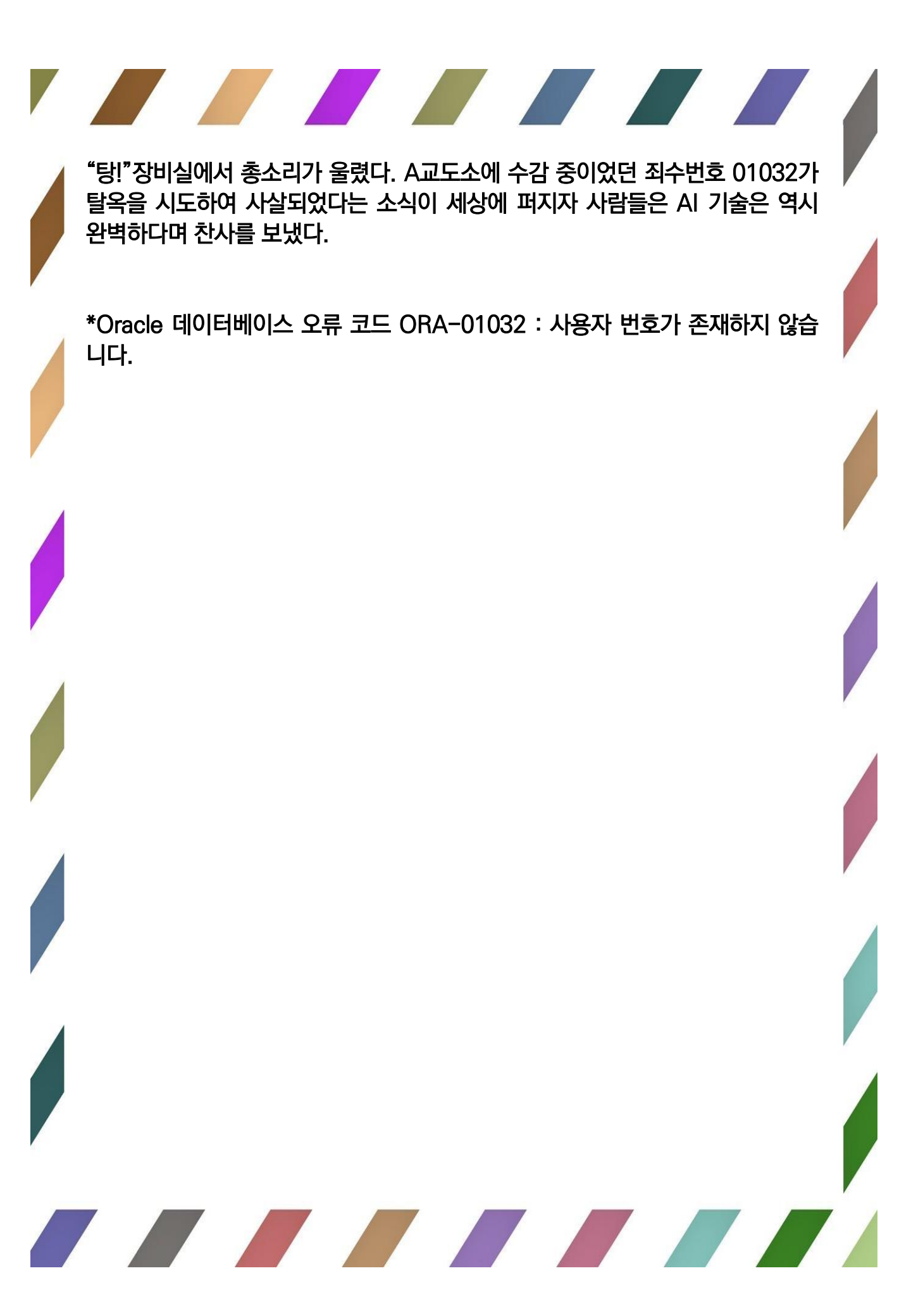
정보통신공학부 김주영

죄수번호 01032는 몇 개월 전, 경제스파이처벌법을 위반하여 징역 30년의 형량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매우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였으므로, 기밀 중 기밀들을 국외로 빼돌릴 수 있었다. 그를 질타하는 세계 여론의 주목 속에, 그는 악랄하기로 유명한 A교도소에 수감되었다. A교도소는 가장 발전된 AI기술이 적용되어 탈옥이 거의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만약 탈옥을 한다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이라 악명이 높았다. 그 악명만큼 A교도소에는 연쇄살인범, 살인 청부업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끔찍한 흉악범들이 수감 중이다.

내가 죄수번호 01032가 된 것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이곳 AI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다. 처음엔 수도 사용시간에만 문제가 있었지만, 방에 누워있어도, 심지어는 벽에 머리를 부딪쳐도 AI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나는 두려웠다. 교도소의 각종 흉악범이 탈옥한다면 나 역시 그들의 범죄 대상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근거렸다. 이 엄청난 사태를 내가 해결하면 필시 모범수가 되어 감형을 받을 것이다. AI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다른 재소자들은 눈치 채지 못했길 바라며 이를 교도관에게 알렸다. 물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모호한 힌트만 주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걸 알려줄 수는 없다. 교도관은 처음엔 나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 전부터 그들은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오늘은 "이런다고 너에게 컴퓨터 쥐어 줄 일은 없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탈옥을 결심했다. 엄밀히 말하면 탈옥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난 이제 석방될 테니, 벽걸이용 에어컨을 뜯어내면 장비실이 나온다. 그곳에서 시스템을 수정하고 이 끔찍한 지옥을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내 계획이다.

오후 4시, 교도관의 점검이 끝나자마자 난 장비실로 향했다. 레크레이션 휴식시간이라 교도관들은 정신이 팔렸고, AI 감시는 무용지물이니 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수감 중에 할 게 없어 시중에 판매중인 인공지능 책을 대부분 섭렵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 이제 이 수정된 버전을 배포만 하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끝이다. AI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잠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정보를 삭제했던가?



“탕!”장비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죄수번호 01032가 탈옥을 시도하여 사살되었다는 소식이 세상에 퍼지자 사람들은 AI 기술은 역시 완벽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오류 코드 ORA-01032 : 사용자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려상

2050, 인류의 재구성

국어교육과 이정민

아난타는 목뒤의 소켓에서 충전 단자가 분리되는 것을 느끼며 눈을 뜬다. 오전 7시 15분. 아직 잠이 덜 깬 어린 딸 재희를 깨워서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한다. “인공 인구 화합 10주년을 맞아, 그 역사를 되돌아보며...” 뉴스에서 기념 방송이 흘러나온다. 식탁으로 올라온 재희가 기계 팔로 손가락을 든다. 재희는 선천적 뇌성마비를 앓아 몸의 반을 기계로 대체했다. 식사를 마친 재희에게 가방을 메어 주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아난타와 웃는 재희. 재희는 유치원에서 보낸 셔틀에 탑승한다. 아난타는 연구실로 향한다.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도 저출산을 막을 수 없었다. 저출산은 곧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인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바로 AI를 산업의 도구가 아닌 주체로 받아들이자는, 인공인구 정책이었다.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설 수 없다며, 인간의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며 반발하던 목소리들은 인공인구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증명되며 차츰 사라져 갔다. 아난타는 인공인구의 하나고, 재희는 그의 일곱 살 난 입양딸이다.

아난타는 바이오 연료를 섞은 에너지 음료를 마시며 모니터 세 대가 달린 컴퓨터를 들여다본다. 그중 한 대에는 재희가 갖고 싶었던 호버 키보드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띄워져 있다. 아난타는 키보드의 금액과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연산하다가, 노크 소리에 사이트를 닫는다. 동료인 지수 씨다.

지수는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체내의 혈액을 인공혈액으로 대체했다. 아직 회복이지만 안색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지수는 아난타에게 몇 가지 연산 자료의 검증을 부탁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연구실을 나간다. 아난타는 종이를 넘기기 시작한다.

해가 지자 복도는 퇴근하는 발소리와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로 가득하다. 아난타도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난다. 1인용 호버카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 하원 셔틀을 타고 먼저 도착한 재희가 있다. 거실에 앉드려 잠든 재희를 안아 들자 재희가 깔고 있던 스케치북이 보인다. 아난타와 재희를 그린 그림 밑에 ‘우리 가족’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아난타는 즐거운 얼굴로 재희에게 입을 맞추고, “잘 자렴, 우리 딸.” 하며 인사한다.

장려상

반려동물 재회 시스템

지능로봇공학과 조찬미

[이전 줄거리]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1인 가구였던 수연 또한 노령의 강아지 ‘해피’를 키우고 있었는데, 1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리고 오늘은 해피가 떠난지 1년이 되는 날. 친구 ‘지후’와 해피를 보러 가기로 한다.

s#1. 수연의 집 앞

지후 : 집은 다 챙겼어?

수연 : 응. 다 챙겼어. 슬슬 나가자.

지후 : 무인택시 불러 뒀으니 곧 도착할거야. 그거 타고 가자.

지후와 수연이 집을 나선다.

s#2. 택시 안

네비게이션 AI :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수연 : ‘무지개 동산’으로 가줘.

네비게이션 AI : 도착 예상시간은 5시 35분, 예상 결제 금액은 5,000원입니다. 금액은 등록해놓으신 카드로 자동결제됩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택시가 출발한다.

수연 : 오늘 같이 가줘서 고마워. 해피도 기뻐할거야.(웃음)

지후 : 나도 오랜만에 해피 보고 좋지~ 그런데... (지후가 우물쭈물 한다)

수연 : 왜?

지후 : 해피 홀로그램 복원에 동의한 것 후회 안해? 아무래도 과거에 매여 살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나였으면 항상 보러가서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아.

수연 : 그래서 가상현실 ‘재회’ 프로그램은 사후 1년부터 가능하잖아. 그 기간동안 나도 마음속으로 충분히 그리워했고 충분히 슬퍼했어. 이젠 해피를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해피가 좋아했던 간식도 챙겨왔다고~ (수연이 약간 씩씩한 웃음을 짓는다.)

지후 : ...그래. 네가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비게이션 AI : ‘무지개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3 무지개 동산

직원 : 어서오세요. 오늘 예약하신 '해피'보호자 분 맞으시죠?

수연 : 네, 맞아요.

직원 :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직원을 따라간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이 나왔다.

직원 : 지금부터 '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3시간동안 진행됩니다. 방은 선택하신 테마 '넓은 들판'으로 구현해드리겠습니다. 특수렌즈를 착용하신 순간부터 시작되세요. 그럼 그리운 시간 보내세요.

직원이 나가고 수연과 지후가 특수렌즈를 착용하자 하얀 방이 변하기 시작한다.

지후 : 와! 진짜 넓은 들판이야. 마치 현실인 것 같아.

수연 : 그러게. 신기하다. 그런데 해피는 어디있지?

그때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수연 : 어? 해피? 해피니?

해피 : 왕! 왕!

수연 : 해피야...!

수연과 지후는 해피와의 재회를 한다.

s#4 무지개 동산(3시간 후)

직원 : 해피와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수연 : 네, 정말 행복한 3시간이었어요. 해피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나중에 해피와 마주할 때 부끄러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웃음) 오늘 감사했어요.

직원 : 네, 오늘의 기억이 앞으로의 힘이 되길. 안녕히 가세요.

장려상

발표가 걱정됐던 한 초등학생의 일기

소프트웨어학부 최상영

2042년 6월 1일 일기 제목 : 완벽한 내일의 발표를 위하여

나는 당장 내일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높은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다. 나는 발표를 잘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연습해보았지만, 여전히 발표가 걱정되어 연습 앱을 쓰려고 다시 내 VR을 집어 들었다.

내가 부모님을 졸라 샀던 이 VR은 다른데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처럼 바로 설치된 앱을 커서 쓸 수 있다. 물론, 더 높은 성능을 위해 컴퓨터 같은 다른 곳에 연결해서 성능을 빌려 쓸 수도 있다. 오늘도 그랬고. VR을 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현실의 그래픽은 내 눈을 너무나 즐겁게 해준다.

사실 내 것보다 훨씬 좋은 온몸의 감각까지 비슷하게 재현해주는 여러 장비를 같이 주는 VR 세트도 있는데, 부모님께서 2배는 비싼 걸 뭐 하러 사냐며 안 사주셨었다. 2배라고 해봤자, 조금 좋은 컴퓨터 가격 정도라 눈 딱 감고 사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지금처럼 눈으로 보고, 엄청나게 졸라 작년에 겨우겨우 산 무선 장갑을 연결해서 손을 가상현실에서 움직이고 어느 정도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름 만족한다.

VR로 여행을 하는 게임을 하며 땀짓을 좀 하다가, 잠깐 잊어버렸던 발표가 다시 떠올라 발표 연습 앱을 켜다. 배경, 청중, 청중의 수준, 질문 수준, 발표의 전문성 수준 등 설정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데, 직접 다 따로 하는 설정 외에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프리셋으로 한 번에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다. 설정을 마치고, 발표 앱에 내 발표 자료들을 모두 넣은 뒤 AI가 해주는 잠깐의 분석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기실이 사라지고 발표 공간이 로드된다.

이 가상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은 가짜인 걸 알지만 항상 압도당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진짜처럼 긴장된다. 특히 가장 무서운 점은 AI 청중들이다. 나는 발표 앱 설정에서 청중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지정해뒀는데,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발표를 들으며 진짜 청중들처럼 집중하기도, 속닥속닥 잡담하기도, 필기하기도, 심지어 즐기기도 한다.

내가 설정에서 질문 기능을 켜놔기 때문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질문도 하는데, 내 발표 내용 자체에 관한 질문 같은 사소한 질문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연계한 질문 같은 수준 높은 질문을 하기도 해서 답변하려면 진을 빼야 한다. 앱 소개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한 AI를 통해 대본과 PPT,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평가 및 청중 행동에 적용... 어찌고저찌고 적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발표를 다 하면, 평가 결과라는 창이 뜨는데, 내 발표가 어땠는지 AI가 평가해준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평가를 바탕으로 내 발표를 고치면, 실제 수업에서 발표할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며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다. 오늘 VR로 발표 연습을 하면서 옛날에는 발표를 연습하려면 웅변 학원에 다니거나, 계속 실제 발표에 나가 이를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나처럼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 두렵거나 발표 자체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 친구는 이런 발표 연습 앱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발표가 뭐가 이상하고 뭘 고치면 좋을지 계속 연습해보며, 점검하며 수정해야 한다니, 끔찍하다. 만약 실제 발표까지 큰 문제를 놓쳐서 찾지 못한다면? 그건 더 끔찍하다. 지금은 AI가 다 찾아주는데!

AI 기술이 요즘은 정말 많이 발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나 어느 정도라도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한다. 나도 내 필수 수업 과목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 나중에 앱 설명에서 얘기한 내용 같은 것들을 다 알아듣고 이런 AI를 개발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